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기도 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 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장 3절]

NO	대상자명	관 계	구체적 전도방법	영적수준	비 고
1					
2					
3					
4					

수준1) 결신할 수 있음 수준2) 복음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3) 전도자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4) 기독교에 대하여 알지만 부정적임 수준5) 기독교에 대하여 전혀 모름

가정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19절]

NO	성 명	기도제목
1		
2		
3		
4		
5		
6		

교회를 위한 기도

- 한 기흥 목사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선교사님들의 GMI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교회와 사역/행사를 위하여
 - 4차 일천번제 특별 새벽기도회(1/22/2024~10/17/2026)
 - 그룹장 모임(12/9)
 - 은혜 성가제(12/14)
 - 교육부 성탄 가족예배(12/19)
 - 성탄 주일 예배(12/21)
 - 성탄절 온가족 감사예배(12/25)
 - 목자 송년의 밤(12/30)
 - 송구영신예배(12/31)

가정교회 예배안 2025. 12. 7

12월 첫째 주: 하나님의 눈은 성도를 향하고 계신다. (시편 37:19)

■ Welcome

12월의 재미있는 기억은?(성탄 추리, 새벽송, 송구영신예배 등) 또한 지난 주의 Grace Time을 통해 은혜받은 것 중 하나를 나누어 봅시다.

■ 본문: 시편 37:19

19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 서론

시편 37편은 다윗이 늙을 무렵(25절) 쓴 시이다. 그는 평생을 통해 악인이 행통하는 현실을 수도 없이 보았다. 그러나 결국 의인을 지키시고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는 이 시에서 악인의 행통과 의인의 보호를 선명하게 대비하여 말한다. 잠시 형통해 보이는 악인은 결국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환난 속에서도 붙드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눈은 환난의 때에도, 기근의 때에도, 의인을 떠나지 않는다. 성경은 기근의 날에도 하나님의 공급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 **이삭:**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 26:12-13)

• **엘리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왕상 17:6)

• **사르밧 과부:**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왕상 17:16)

이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이다. 기근의 때에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언제나, 어떤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공급하셨다.

본문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히: 예보슈)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서 의인의 얼굴을 들어 올리신다는 뜻이다. 기근의 날에도 성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눈이 그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 관찰 질문: 환난의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해답 1.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생명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면, 그보다 작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로마서 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공중의 새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더 귀한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실 리 없다.

(마태복음 6: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환난의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보이지 않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

❁ 적용 질문 1

1)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무엇을 말기고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해답 2.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바라보라.

시편 기자는 풍성함을 말할 때 언제나 기근의 날과 연결했다. 풍성은 기근이 없는 날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기근의 날에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환경의 여유’도 주시지만, 무엇보다 ‘관계의 풍성함’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안전, 공급, 채움이 바로 풍성함이다.

(빌립보서 4: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선언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만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 만큼 넘치게 채워 주신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수천 명을 먹이실 때에도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였다(요 6:5-15).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라고 증언한다(에베소서 3:20).

❁ 적용 질문 2

1) 풍성한대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에 대해 그렇게 해 주시길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해답 3. 기도응답하시는 아버지께 나아가라.

시편 37편은 반복해서 말한다. 의인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이다. 기도는 바로 이 기다림이며, 이 의지함의 실제적인 행위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이렇게 외쳤다.

(시편 18:6)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환난 속에서 기도하는 자의 음성은 하늘에 흠뻑히 들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귀에서, 그 부르짖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는 특정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다.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아버지의 앞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 적용 질문 3

- 1) 나만의 기도 시간은 언제이며, 장소는 어디입니까?
- 2) 들으시고, 귀 기울이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해답 4.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아버지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난과 저주의 짐을 대신 지신 분이다. 가난과 저주는 죄의 결과로 인류에게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짐을 십자가 위에서 친히 짊어지셨다.

(고후 8: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시어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을 선택하셨다. 그분의 가난함 속에서 우리의 부요함이 시작되었다.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인 동시에, 가난과 저주를 영원히 끊어내는 하나님의 선언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저주를 끊고, 결핍을 거두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부요를 흘려보내신다

***스티브 모리스 장로의 예**

❁ 적용 질문 4

- 1)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케 된 것, 회복된 것, 치유된 것을 나누어 봅시다.
- 2) 사랑의 계절 12월에 은혜를 받은 분에 대해 나누고 기도합니다.